

남원 화물공영차고지 문 활짝

사업비 26억원 투입 준공 주거지 일대 밤샘주차 해소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 기대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번지(구 주생비행장) 일대에 국비 17억, 시비 9억 등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총 2만4,000㎡의 부지에 총 주차면수 219면 규모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완료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주택가 인근 밤샘 주차로 몸살을 앓던 도심지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거지 일대 밤샘주차 해소와 함께 지역 산업 활성화를 기대된다.

이번 조성된 화물공영차고지에는 대형 화물자동차 169대, 승용차 50대 주차가 가능하며, 화물자동차 기사들을 위한 식당, 샤워장, 수면실 등 각종 휴게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또한 화물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과 화물자동차 정비시설을 한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번지 일대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완료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개 갖추고 있어 남원시 내 산업단지 와 연계한 물류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공영차고지가 지역발전의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를 기대한다" 하였다.

남원시는 당분간 화물공영차고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화물차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기념사에서 "화물공영차고지의 준공으로 남원 산업

단지와 연계한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공영차고지가 지역발전의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를 기대한다" 하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게 됐다"며 "남원시에 등록된 화물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돼지고기 잡내 잡는 '된장 돈가스 소스' 눈길

순창군 가정식 발효소스 로컬푸드레스토랑에 기술이전... 산업화 박차

순창군이 개발한 가정식 소스 '된장 돈가스 소스'가 지역 내 로컬푸드레스토랑에 기술 이전돼 산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군은 지난 8일 순창고추장민속마을에 위치한 로컬푸드레스토랑 '순창 맛집'에 가정식 발효소스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으로 로컬푸드레스토랑에서는 '된장 돈가스 소스'를 활용한 요리를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기술 이전된 '된장 돈가스 소스'는 소스산업화 및 순창만의 독특한 맛이 담긴 소스를 찾기 위해 지난 9월 진행된 '가정식발효소스 발굴 및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소스다.

순창의 전통 된장과 간장을 활용해 만든 소스로 된장 특유의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특히 돈가스에 사용되는 돼지고기 특유의 잡내를 잡아주는 특징이 있다.



순창군은 지난 8일 순창고추장민속마을에 위치한 로컬푸드레스토랑 '순창 맛집'에 가정식 발효소스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군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된장 돈가스에 전통 장류를 활용한 소스를 접목해 전통장류의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술이전 시식회에 참석한 김미옥 생활개선순창군연합회장은 "된장 돈가스소스는 달콤한 맛과 함께 된장 특유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져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이번 기술이전 협약 체결을 통해 순창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순창만의 건강하고 독특한 소스를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전통 장류를 활용한 다양한 소스를 개발하고 산업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헌집줄게 새집다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9세대 새 보금자리 선물

임실군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지만, 공공자원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9세대에 대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군은 이들을 위해 올해 군비 2천 만원을 확보, 복지이장 및 읍면 행복보장협의체를 통해 주거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추천받아 민간 협력기관과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의 수혜대상은 장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윤모 독거 어르신 등 생활형편이 매우 곤란한 지역 내 불우이웃들이다.

윤모 어르신은 그동안 비좁은 행랑채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통합사례대상가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임실지부와 임실우체국, 이도건축사의 재능기부와 군 희망복지팀과 관촌면맞춤형복지팀, 신덕면사무소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이외에도 삼계와 덕치, 강진 등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 8세대도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전북임실지역자활센터, 임실 행복보장협의체를 통해 주거개선이 필요한 민간 협력기관에 지붕교체와 도배장판, 단열·난방공사 등을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군은 내년에도 더 많은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천만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심 민 군수는 "내년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을 전개하겠다"며 "지역주민과 여러 민간자원을 연계해 함께 만드는 희망임실,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출산서비스 신청 온라인으로"

남원시(시장 이원주)는 12월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하여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이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서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및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온라인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대폭 해결하게 되었다.

남원시 민원과장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시행이 행복출산 문화 확대와 인구 장려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재난위험지역 주요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완료

순창군은 강천산, 용골산, 채계산, 회문산, 아미산, 금산 등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 정확한 위치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판 87개소를 설치 완료해 군민과 관광객의 응급 조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10m단위로 격자형으로 그물망처럼 구획하고 각 지점마다 한글 2자와 아라비아숫자 8자로 조합된 번호를 부여한 통일된 국가적 위치표시 체계로써, 산악에서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로 위치를 신고하면 119구조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위치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인명구조와 구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은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강천산 등 10개 등산로를 국가지점번호 우선 설치지역으로 선정하고 설치를 마쳤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통일된 위치표시 체계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군민들이 야외에서 안전한 여가와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판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큰 호평'

주민 이용료 2200원으로 저렴... 이용률 63.7% 돌파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의 이용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원대상자들로 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시행 초기 만해도 전체 이용대상자 1,293명중에서 22.3%인 284명만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행한지 1년이 지나면서 11월 현재 전체대상자의 63.7%인 824명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주민이 크게 늘었다. 연 인원은 2만2,600여 명이 이용 하고 있는 것.

이같은 결과는 시행초기에는 목욕탕에 들어갈 때 지문인식으로 입장하던 것을 보안카드로 대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이용률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

인,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대중목욕탕 이용 시 이용료의 34%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군 보조금과 목욕탕 입주할 부담을 포함하면 읍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은 회당 2,2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목욕탕 지원 횟수는 1명당 주 2회 월 8회 한도에서 지원하고 혹서기인 6월, 7월, 8월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사업은 면단위에서는 싼 가격으로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여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사업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읍 65세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목욕탕을 이용해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제도"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범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